

	보 도 자 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미래창조 금융• 따뜻한 금융• 튼튼한 금융
	7.7(화) 14:00부터 보도 가능	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보험과		
책 임 자	이동훈 과장(2156-9830)	담 당 자	김선문 사무관(2156-9831) 권기순 사무관(2156-9835)
배 포 일	2015.7.7.(화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2매

제 목 : 임종룡 금융위원장, 「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」 참석
- 보험상품 · 가격 자유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

1 회의 개요

- 7.7일, 금융위원장은 「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」에 참석하여,
- 보험업 종사 실무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규제개혁에 대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보험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함

< 보험업계 실무자 간담회 개요 >

■ 일시/ 장소 : 2015.7.7.(화) 14:00 ~ 15:30/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

■ 주요 참석자

- (금융위) 금융위원장, 금융서비스국장, 보험과장 (금감원) 부원장보
- (보험사) 라이나생명, 현대해상, 악사손보, 흥국생명, 교보생명, 삼성생명, 코리안리, 동부증권 애널리스트[대부분 부장급 실무자]
- (협 회)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
- (연구원) 보험연구원

-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, 우리 보험산업을 국민경제의 굳건한 축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소신을 밝히고,
- 상품 복잡성 등으로 규제가 많은 보험분야의 창의 ·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상품 · 가격 관련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함

- 금일 참석자들은 주로 상품·가격 자유화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하였음
 -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이 상품신고 및 가격책정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건의하였고,
 - 그 외에도 실손의료보험 관련 비급여 표준화, 자동차보험 누수방지 등 타부처 협업 필요과제에 금융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음
-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상품·가격 규제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하반기 법규정비 작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함
 - 상품·가격에 대한 사전적 심사체계가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면서,
 - 상품 신고대상 축소, 상품설계 관련 기준·요건 완화 등 명시적 규제를 대폭 정비하는 한편,
 - 상품개발·가격결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비명시적 규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최소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
 - 또한, 복지부·국토부 등 타부처 협의 과제 및 하반기 국회입법 필요사항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